

Ⅱ. 호족세력의 할거

1. 호족세력의 대두 배경
2. 호족세력의 대두
3. 장보고와 청해진

II. 호족세력의 할거

1. 호족세력의 대두 배경

1) 호족의 개념

신라말·고려초에 대두한 지방세력을 豪族이라 부르고 있다. 호족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한국사 개설서에서 그리고 이 시기를 연구한 대부분의 논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지방세력을 호족이라 부르는 것은 이미 통설이 되었다. 그렇지만 호족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호족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고 논지를 전개한 결과, 호족의 성격이나 신라말·고려초 사회변동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에 호족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연구사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시도되어 왔다.¹⁾ 그런 가운데 호족의 개념은 좀더 분명히 정의되었고, 이것은 호족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호족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이래 한국사 연구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는데, 그 개념은 1950년대까지는 대체로 “신라말·고려초에 지방에서 대두한 새로운 사회세력”의 의미로 인식되었다.²⁾ 그 후 1960년대초에 호족에 대한

1) 李純根, 〈羅末麗初 ‘豪族’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聖心女大論文集》 19, 1987).

文晳鉉, 〈豪族論〉(《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金甲童, 〈豪族聯合政權說의 檢討〉(《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0).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李基白 外,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一潮閣, 1993).

2) 申虎澈, 위의 글, 127~128쪽에 인용된 白南雲·孫晉泰·李丙燾·李弘植·申奭鎬·韓沽欣·曹佐鎬의 글에서 호족이 그러한 의미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적인 논문이 발표되면서³⁾ 호족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사 개설서의 篇名으로 「豪族의 時代」가 설정되면서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라말·고려초의 사회변동을 주도한 지방세력을 호족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호족의 개념이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제 호족의 개념을 정의한 대표적인 견해를 비교적 긴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은 “지방에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호족은 그들의 독자적인 세력을 강하게 내세우는 존재였다. 호족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몰락해 내려간 중앙귀족 출신도 있었지만 지방에 토착해 있던 村主 출신도 있었다. 이들은 자기의 세력기반인 鄉里지방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중앙정부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강한 의욕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반독립적인 자세에서 중앙정부와 연결하고 있었다”⁵⁾라고 호족의 개념을 정의한 견해가 있다. 여기서 호족은 중앙정부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강한 의욕을 지니고 있었으며, 행정적·군사적·경제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독자적인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처에서는 有力者が 그 지방을 세력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나갔던 것이다…그 지방의 유력자, 즉 호족은 城主 혹은 將軍이라 불리고 있었으며, 그의 세력이 미치는 지방의 민중들을 직접 지배하며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⁶⁾라고 호족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 있다. 여기서 호족은 지방의 유력자로서 그의 세력이 미치는 지방의 민

3) 旗田巍,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法制史研究》10, 1960; 《朝鮮中世社會史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金鍾國, 〈高麗王朝成立過程の研究—特に豪族問題を中心として—〉(《立正史學》25, 1961).

4) 李基白, 《韓國史新論》(一潮閣, 1967).

5) 李基白, 〈高麗貴族社會의 成立〉(《한국사》4, 國史편찬위원회, 1974;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3쪽).

6) 河炫綱,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한국사》4, 1974), 45쪽.

중들을 직접 지배하며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호족은 나말여초에 존재한 지방세력으로서 성주 혹은 장군이라 불리우고 있었다. 그들은 지방에 근거를 둔 토착세력으로서 자신의 세력이 미치는 지방의 민중들을 직접 지배하며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사에 있어서 古代・中世의 전환기가 되는 나말여초라는 內亂期를 이끈 세력으로서 신라를 해체하고 고려를 성립시킨 주역들이다”⁷⁾라고 호족을 정의해 놓기도 하였다. 여기서 호족은 신라말・고려초에 존재한 지방세력으로서 지방의 민중을 직접 지배하며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라를 해체하고 고려를 성립시킨 주역들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호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호족은 신라말・고려초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행정적・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서 신라말・고려초의 사회변동을 주도한 세력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아울러 호족은 대체로 성주・장군으로 불리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족의 개념이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호족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한층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호족의 일반적인 성격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는 “신라의 골품체제나 王京 중심의 사회체제에 반발하고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地方性 혹은 在地性이, 군사적・경제적・사회적으로 거의 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독자성 혹은 독립성이, 일정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領域性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호족을 “① 신라 말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고, ② 그 세력 기반은 중앙(王京)이 아닌 지방사회에 있었으며, ③ 일정한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지배권—군사적・경제적・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④ 신라의 골품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7) 申滢植, 〈豪族의 歷史的 性格〉(《新羅史》, 梨花女大 出版部, 1985), 225~226쪽.

로—을 가진, ⑤ 특히 신라 骨品貴族이나 고려 門閥貴族과는 대비되는 신라 말·고려초의 정치적 지배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⁸⁾ 이러한 호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견해로 믿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호족의 개념과 관련하여 호족의 土着性 혹은 地方性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동안 호족의 성격으로 토착성이 강조되어 왔다. 토착성은 태어나 성장한 지역, 즉 출신지에 여러 대에 걸쳐 在地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착성을 지닌 지방세력만을 호족으로 보는 것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출신지를 떠나 移居地에 세력기반을 마련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방성과 재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지방세력이 출신지를 떠나 특정한 지역에 이거하여 자리를 잡고 세력기반을 마련하였다면, 그 세력을 호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거지에 자신의 代 혹은 아버지의 대에 재지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는 지방으로 낙향한 중앙귀족의 경우에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지방성과 재지성의 의미를 더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지방성·재지성의 의미는 토착성의 의미에 더하여 출신지를 떠나 이거지에 세력기반을 마련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甄萱이 武州에서, 弓裔가 溟州에서 자립하던 초기, 아직 국가체제의 틀을 갖추지 못했던 때에는 그들도 호족이었다고 생각한다.⁹⁾ 尹瑄이 궁예로부터의 禍를 염려하여 그 무리를 거느리고 鵲巖城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를 호족으로 불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國原에서 30여 성주와 연결을 맺고 있었던 梁吉도 물론 호족이었다고 생각한다.

8) 申虎澈, 앞의 글, 133쪽.

9) 이와 관련하여 필자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申虎澈이 건원·궁예·왕건을 호족세력으로 이해한 것이 참고된다. 그는 “건원·궁예·왕건은 모두 호족출신이거나 호족세력을 배경으로 그들과 연합하여 세력을 구축한 지방세력 가운데 가장 강대한 세력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이들 셋 모두 호족세력의 대표적 존재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申虎澈, 〈豪族勢力의 成長과 後三國의 鼎立〉,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신서원, 1994, 151~152쪽).

한편 사료에 나타난 지방세력에 대한 표현으로는 將軍·城主·城帥·帥·賊帥·賊·雄豪·豪傑·豪族 등이 사용되었다.¹⁰⁾ 이렇게 표현된 지방세력이, 그 동안에 이루어진 호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호족의 사례로 제시되어 왔다는 것은 쉽게 인정되는 사실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서 賊으로 표현된 지방세력 중에서 赤袴賊 등과 같은 草賊이나 群盜는 호족에서 제외시켜 온 것도 그 동안의 연구 경향이었다.¹¹⁾ 왜냐하면 호족의 성격으로 지방성과 재지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군·성주·성수·수·적수·적·웅호·호걸·호족 등으로 표현된 세력 중에서 지방에 재지적 기반이 없는 초적이나 군도 등을 제외한 지방세력을 호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상에서 호족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여기서 소개한 여러 견해들을 토대로 하여 호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호족은 신라말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여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서 신라말·고려초의 사회변동을 주도한 지배세력이었다. 아울러 호족은 장군·성주·성수·수·적수·적·웅호·호걸·호족 등으로 표현된 세력 중에서 지방에 재지적 기반이 없는 초적이나 군도 등을 제외한 지방세력이었다.

2) 호족세력의 대두 배경

신라말에 지방에서 대두한 새로운 사회세력을 豪族이라 부른다. 중앙정부

10) 李純根, 〈羅末麗初 地方勢力的 構成形態에 관한 一研究〉(《韓國史研究》 67, 1989), 29~38쪽.

11) 金哲堉은 호족의 한 유형으로 草賊·群盜의 무리를 徒黨化한 것을 제시하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箕萱·梁吉·弓裔를 들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초적·군도의 무리를 호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느낌을 주지만, 자세히 그 의미를 더듬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적·군도의 무리는 호족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러한 무리를 도당화하여 거느린 기훤·양길·궁예는 호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金哲堉, 〈文人階層과 地方豪族〉, 《한국사》 3, 1976, 602~603쪽).

의 통치력이 크게 약화되는 眞聖女王대부터 호족은 지방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장하여 당시의 사회변동을 주도하였다. 호족의 대두는 新羅骨品制社會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신라골품제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그런 만큼 호족의 대두는 신라 하대에 이르러 골품제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과 짝하여 나타났다.

첫째, 당시 골품제사회는 진골귀족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진골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王의 近親일지라도 官界 진출에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왕의 從弟나 從叔의 官等이 舍知로서 비교적 낮았고, 관직도 縣令·長史 등 비교적 하위 관직이었던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진골귀족의 포화상태를 반영하여 준다. 이에 따라 왕실 및 진골귀족은 여러 家系로 分枝化되었다.¹²⁾ 진골귀족의 증가는 또한 자체 내의 도태작용을 수반하였다. 그리하여 진골귀족의 각 가계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정권쟁탈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정권쟁탈전은 해공왕대에 일어난 여섯 번의 반란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화되었다. 왕위쟁탈전에 참가했다가 패배한 가계는 권력에서 소외되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도태에 의해서 몰락한 진골귀족의 가계는 지방의 연고지로 낙향하여 지방세력으로 전환하였다. 惠恭王 4년(768)에 일어난 大恭의 亂에서 王都 및 五道 州郡의 96角干이 서로 싸웠다. 대공을 비롯한 96각간은 진골귀족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미 중대말에도 전국 각지에 진골귀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30년대 후반의 치열한 왕위쟁탈전을 거치면서 몰락한 진골귀족의 낙향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물론 진골귀족에 비하여 그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훨씬 낮았던 六頭品貴族의 낙향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낙향귀족들은 食邑이나 祿邑 혹은 牧馬場 등을 기반으로 지방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낙향귀족들은 신라말에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여 신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호족으로 대두하였다.

둘째, 골품제사회는 지방인의 중앙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점을

12) 李基東,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 85, 1980;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78~180쪽).

지니고 있었다. 골품제사회는 中央人・慶州人의 특권만을, 그것도 진골귀족의 특권만을 보장해 주는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 지방사회의 실력자들이 중앙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지방민들이 실력을 쌓더라도 그들은 지방사회에서 그 실력을 대를 물려 이어가면서 토착세력이 되는 길 이외에 다른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방사회의 실력자들은 촌락에서 村主로서 村政을 담당하면서 군현의 邑司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국가체제 안에서 이를 수 있는 사회적 진출의 전부였다. 촌주는 촌락에서 對民關係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고 村主位階를 지급받았으므로 지방사회에서 세력기반을 확대하여 정치적・군사적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촌주 이외의 지방민들은 국가체제 밖에서 실력을 쌓아 유지・확대하였다. 지방민들은 松嶽의 作帝建이나 貞州의 柳天弓처럼 해상무역에 종사하거나 혹은 尙州의 阿慈介처럼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로 경제적 실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사회의 실력자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천궁처럼 邑의 長者로 불리지거나 公州의 兢讓(靜眞大師)의 선대처럼 州里의 長者나 郡邑의 豪戶 등으로 불려졌다. 그들은 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지방사회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 대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 진출의 길을 봉쇄당했던 지방민들이 지방사회에서 독자적 지방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이 신라말에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신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여 호족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골품제사회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방사회에는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 지방세력으로 성장한 잠재적인 독립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적절한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신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입장에 있었다. 그 기회는 다름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는 시기에 왔다. 그 시기는 대체로 880년대 무렵이었다. 특히 전국이 내란상태에 놓이게 되는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호족은 전국 각지에서 대두하여 「豪族의 時代」를 열었다.

〈鄭淸柱〉

2. 호족세력의 대두

호족은 그 출신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유형으로는 대체로 落鄕貴族 출신의 호족, 軍鎮勢力 출신의 호족, 海上勢力 출신의 호족, 村主 출신의 호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형의 호족은 그 출신이 다른 만큼, 호족으로의 대두 과정이나 존재 양상 및 성격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1) 낙향귀족 출신의 호족

落鄕貴族은 본래는 중앙귀족이었으나 낙향하여 지방에 거주하면서 토착세력이 된 귀족을 지칭한다. 낙향귀족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국가의 徙民에 의한 낙향귀족이다. 중앙귀족으로서 지방에 사민되었다면 그들은 당시 경주에서는 몰락한 귀족으로서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민되어 지방에 거주한 만큼 그들을 낙향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라에서는 王京에 거주하는 중앙귀족이 제반특권을 누렸다. 이러한 왕경의 중앙귀족이 지방으로 사민된 것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고대국가의 성립기에 정복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주요 지역에 小京이 설치되고 그 곳에 王京人을 집단적으로 사민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즉 智證王 15년(514)에 阿尸村에 소경을 설치하고 6部와 南地의 人戶를 이주시켰다. 眞興王 18년(557)에 國原小京(忠州)을 설치하고 다음해 2월에는 귀족의 자제와 六部の 豪民을 국원소경에 이주케 하였다. 善德女王 8년(639)에는 何瑟羅州(江陵)에 北小京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중앙귀족의 사민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삼국통일 이후였다. 이는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文武王 14년(674)에 六徙의 眞骨로 5京과 9州에 出居케 함으로 해서 따로 官名을 일컫게 하였으니, 그 官等은 京位에 준하게 하였다(《三國史記》권 40, 志 9, 職官 下, 外位).

문무왕 14년(674)은 삼국통일 직후로 唐軍을 축출하기 위한 전투가 한창인 시기이다. 이 사료에는 경주 6부의 진골귀족만을 출거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때에도 물론 진흥왕대에 국원소경을 설치할 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족의 자제와 6부의 호민이 두루 사민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6두품귀족과 그 이하의 두품 신분층도 사민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 편입된 영토의 주요 지역에 경주 6부의 진골귀족이나 6두품귀족 등을 사민시켜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삼국통일 이후 새로 영토로 편입된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포함한 전국토는 새로운 지방통치조직으로 편제되었다. 문무왕 18년·20년에 北原小京·金官小京이 각각 설치되고 神文王 5년(685)에 西原小京·南原小京이 설치되어 5小京이 성립되었다. 9州도 신문왕 5년에 설치되었다.¹⁾ 이러한 9주 5소경제의 성립으로 중앙귀족의 지방 진출은 보다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5소경과 9주의 治所에는 경주에서 이주해 온 중앙귀족이 다수 존재하였다.

소경은 말 그대로 작은 왕경이었다. 그러므로 소경은 왕경의 정치·사회·문화 등을 축소시켜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경은 準王京으로 대우받았다. 그래서 소경에 이주하여 살았던 중앙귀족은 위의 문무왕 14년의 外位에 관한 사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경의 6部人과 마찬가지로 京位를 받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소경의 귀족이 왕경의 6부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국가의 사민 조치에 의하여 小京人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왕경의 6부인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었을 것이다. 소경인은 왕경인에 비하여 출세의 제약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²⁾ 그렇지만 소경의 귀족은 지방사회에서는 일반 지방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층이었다. 9주의 치소에 이주하여 살았던 귀족들도 소경의 귀족들과 마찬가지로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진골귀족의 分枝化와 자기도태 과정에서 몰락한 낙향귀족이다. 이

1) 9州 5小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藤田亮策, 〈新羅九州五京攷〉(《朝鮮學報》5, 1953).

林炳泰, 〈新羅小京考〉(《歷史學報》35·36, 1967).

李仁哲, 〈統一新羅期の 地方統治體系〉(《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2)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I (古代篇)(一潮閣, 1982), 335쪽.

경우가 보다 전형적인 낙향귀족이다. 신라 하대에 이르면 진골귀족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왕실 및 진골귀족 집단은 여러 家系로 분지화되고 있었다.³⁾ 이들 가계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독립된 단위로서 기능하였다. 진골귀족의 증가는 또한 자체 내의 도태작용을 수반하였다. 그런데 진골귀족들은 독립된 가계를 중심으로 권력투쟁을 전개하여 패배한 가계를 몰락시키는 것 이외에는 진골귀족을 자체적으로 도태시킬 원리나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진골귀족의 분지화 경향과 자기도태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촉진되어 갔다. 이에 따라 신라 하대에는 진골귀족의 각 가계를 중심으로 왕위를 둘러싼 정권쟁탈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왕위쟁탈전에 참가했다가 패배한 가계는 권력에서 소외되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계의 중앙귀족은 자신의 연고지(田莊)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거주하면서 지방세력이 되었다. 왕의 피살과 수많은 반란이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운데 중앙귀족으로서 몰락하여 자신의 세력근거지로 낙향하는 자는 더욱 많아졌다. 그리하여 왕위쟁탈전이 특히 치열했던 僖康王·閔哀王·神武王대에 이르러 낙향귀족은 거의 전국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⁴⁾

한편 권력에서 소외된 진골귀족 가계의 구성원 중에서 지방관으로 나가 있던 자는 그대로 지방에 머물러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방관으로 나가 있다가 낙향한 귀족의 가계는 이미 몰락하여 경주에서는 거주할 수 없는 처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하대에 중앙귀족이 낙향하여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이는 신라말의 禪師들의 碑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선사들은 그들의 가계를 鷄林冠族·鷄林宗枝·鷄林聖枝·鷄林人·京師人·東溟冠族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에는 다소 粉飾된 것도 없지 않지만 그들이 경주의 진골귀족 출신이거나 6두품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無染의 선대는

3) 李基東,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85, 1980;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78~180쪽).

4) 金杜珍, 〈統一新羅의 歷史와 思想〉(《傳統과 思想》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62쪽.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진골귀족에서 몰락하여 6두품으로 강등되어 藍浦에 낙향하였다. 利嚴의 선대는 경주에서 流落하여 熊川으로, 다시 富城·蘇泰(현 瑞山郡)로 낙향하였으며, 慧徹의 祖는 朔州 善谷縣으로 낙향하였다. 麗嚴과 開淸의 선대는 관직을 따라 지방에 나갔다가 그대로 머물러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선대 가계는 대체로 중앙귀족 출신으로서 몰락하여 지방으로 낙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의 사민 조치에 의해서였던 진골귀족의 자기도태 현상에 의해서였던 신라 하대에 이르러 낙향귀족은 5소경과 9주의 치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낙향귀족은 그 곳 지방사회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토착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지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신라말의 혼란기에 이르러 호족으로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5소경과 9주의 치소는 신라말·고려초에는 대체로 유력한 호족의 거점으로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淸州(서원소경)·忠州(중원소경)와 溟州이다.

낙향귀족이 호족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후대의 기록이지만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말에 귀족의 후예가 다투어 豪武를 써서 州縣을 制覇하고는 고려 통합 초에 歸服하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진압하지 못할까 근심하여 억지로 所在地의 戶長으로 삼아 억제하였다(《掾曹龜鑑》권 1, 吏職名目解, 戶長).

이처럼 신라말에 각지에 거처하는 중앙귀족의 후예, 즉 낙향귀족이 豪武를 써서 주현을 제패하고 호족이 되었던 것은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소경이 설치되었던 지역인 청주·충주의 호족이나 주의 치소 지역이었던 명주의 김주원계 호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는 신라말·고려초에 여러 호족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청주호족에 대해서는 다른 호족에 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⁵⁾ 그 이유는 청주

5) 金光洙,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韓國史研究》 7, 1972).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韓國史研究》 48, 1985).

朴敬子, 〈淸州豪族의 吏族化〉(《원우론총》 4, 淑明女大, 1986).

鄭淸柱, 〈弓裔와 豪族勢力〉(《全北史學》 10, 全北大, 1986;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호족에 관한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청주지역에 유력한 호족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의 동향이 신라말·고려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준다. 청주 호족의 존재 양상은 <龍頭寺幢竿記>(광종 13년 ; 9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금석문에 의하면 당시 청주지역에는 金氏를 비롯하여 孫氏·慶氏·韓氏 등의 호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김씨 일족은 청주호족의 대표적 존재였다. 이들은 용두사의 檀越勢力으로서 당간 건립을 주도한 집단이다. 이 당간은 金芮宗이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죽게 되자 從兄 金希一 등이 완성하였다. 즉 김예종가와 종형 김희일가가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김예종과 김희일 이외에도 金守□·金釋希·金寬謙이 건립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김예종과 김희일은 堂大等이고 김수□·김석희·김관겸은 大等이다. 당대등·대등은 成宗 2년(983)의 鄉吏職 개편에서 戶長·副戶長으로 개칭되는 직명으로 당시 지방사회의 최고 지배자를 뜻한다. 실제로 이들 청주 김씨는 ‘檀越兼令’의 임무를 맡았고, ‘遂令鑄成’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令」(명령)에 의하여 그 지방의 관직에 있던 자들을 동원하여 당간을 건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청주 김씨는 청주지역의 최고 지배자집단이었다.

청주 김씨 일족은 궁예·왕건대에 上京從仕한 계열과 在地勢力化한 계열로 분화되었다. 태조 즉위 직후의 인사조치에서 白書省卿에 임명된 金言規나 태조대에 守司徒·三重大匡이었다는 金勤謙은 전자에 속하고, 용두사 당간을 건립한 김예종·김희일 등은 후자에 속한다. 한편 청주에서는 金兢律이 그의 두 딸을 혜종·정종에게 納妃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김공률도 청주 김씨의 한 가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공률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배경에는 청주 김씨의 탄탄한 族的 기반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金周成, <高麗初 清州地方의 豪族>(《韓國史研究》 61·62, 1988).

安永根, <羅末麗初 清州勢力의 動向>(《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2).

申虎澈, <後三國 建國勢力과 清州 地方勢力>(《湖西文化研究》 11, 忠北大, 1993).

이와 같이 청주 김씨는 청주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강력한 호족세력이었다. 이는 당간기의 撰者가 청주 김씨를 ‘州里豪家 鄉閭冠族’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청주호족은 가장 전형적인 호족이었다.

그렇다면 청주 김씨 일족은 언제부터 청주지방에 거주하였을까. 이들 일족의 姓氏가 新羅宗姓인 김씨이고 청주가 서원소경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주 김씨 일족은 서원소경의 설치와 함께 경주로부터 사민된 진골귀족의 후예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그들은 청주에 이주해 와서도 여전히 지배층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定住하여 재지화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세력기반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청주 김씨는 청주지방에서 首位의 성씨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신라말에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청주지방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호족세력으로 성장하여 갔던 것으로 여겨진다. 청주 김씨는 소경에 거주하는 낙향귀족이 호족으로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청주에는 6두품 출신의 호족으로 여겨지는 孫氏 일족이 있었다. 손씨는 원래 경주의 6두품으로서 서원소경이 설치될 때 사민되어 온 성씨로 생각된다.

충주도 낙향귀족이 호족세력으로 등장한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충주호족의 존재 양상은 〈淨土寺法鏡大師碑〉의 陰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음기에는 法鏡大師 玄暉의 제자로서 비의 건립에 참여한 道官·俗官의 인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⁶⁾

이들 인물의 성씨를 살펴보면 충주지방의 대표적인 성씨는 劉氏·金氏·朴氏·崔氏·張氏로 나타난다. 이들 성씨가 충주지방을 지배하는 유력한 호족들이었다고 이해된다. 이 가운데 유씨 집단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즉 劉兢達은 왕건의 제3비인 神明順成王后의 아버지로서 그의 딸을 고려 건국 후 제일 먼저 왕비로 納妃할 정도로 크게 활약한 호족이었다. 그리고 劉權說은 태조대에 侍中의 지위에 있었다.

6) 蔡尙植, 〈淨土寺址 法鏡大師碑 陰記의 分析〉(《韓國史研究》 36, 1982).

그런데 이들 성씨 중에서 박씨와 김씨는 진골귀족 출신의 호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씨·최씨·장씨는 6두품 출신의 호족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阿榮을 사용한 성씨에 최씨·장씨가 보이고 奈麻를 사용하는 성씨에 최씨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찬은 6두품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고, 최씨와 장씨는 경주의 6두품 성씨이기 때문이다. 유씨의 출신도 최씨·장씨와 비슷했을 것이다.⁷⁾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라말·고려초에 충주지방에서 활약한 호족들은 경주에서 중원소경으로 사민되어 내려온 중앙귀족, 즉 낙향귀족 출신의 호족으로 생각된다.

金海는 金官小京이 위치했던 곳이다. 이 곳의 호족인 金仁匡도 소경의 관리나 舊加耶王族인 新金氏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인광은 낙향귀족 출신이거나 그와 유사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⁸⁾ 또한 김해에서는 忠至 匡干이 金官高城을 攻取하여 城主將軍이 되었다. 잠간이 제3관등으로서 진골의 관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그는 낙향한 진골귀족 출신의 호족으로 생각된다.

명주는 주의 치소로서 낙향귀족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주원계 후손들이 호족으로 등장하여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였다. 김주원은 중앙에서의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하여 자신의 연고지인 명주로 퇴거하여 지방세력이 되었다. 그는 명주는 물론 襄陽·三陟·平海·蔚珍 등 嶺東 일대에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세력권은 물론 그의 후손들에게 계승되었다.

명주에서는 金順式(王順式)이 신라말에 溟州將軍 혹은 知溟州軍州事로서 강력한 호족세력으로 등장하여 명주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다.⁹⁾ 그는 崛山門 朗圓大師 開淸의 단월이었다. 그는 궁예세력이었는데 왕건 즉위 후에도 오랫동안

7) 金壽泰, 〈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忠州劉氏를 중심으로—〉(《忠淸文化研究》 1, 韓南大, 1989), 13쪽.

8)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韓國史論》 4, 서울대, 1978), 403~405쪽.

9) 金杜珍, 〈新羅下代 崛山門의 形成과 그 思想〉(《省谷論叢》 17, 1986).

金甲童, 〈溟州勢力〉(《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0).

동안 불복하다가 태조 11년(928)에 이르러 귀부하였다. 김순식은 대체로 김주원의 후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¹⁰⁾ 그가 호족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김주원계의 세력기반에 힘입은 바가 컸을 것이다. 이러한 김순식은 낙향한 진골귀족 출신의 대표적인 호족이다. 명주에는 또한 王父라는 호족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김주원의 직계후손으로 王姓을 하사받았는데, 그의 딸은 왕건에게 납비되어 大溟州院夫人이 되었다. 이와 같이 김주원계 후손으로 구성된 명주호족은 낙향한 진골귀족 출신의 호족이었다.

2) 군진세력 출신의 호족

신라의 軍鎭은 처음에는 변경의 수비를 위하여 내륙의 요지에 설치되었다. 武烈王 5년(658)에 삼척에 설치된 北鎭은 靺鞨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宣德王 3년(782)에 平山에 설치된 溟江鎭은 北邊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海賊의 퇴치나 해상 방면의 방어를 위하여 해안의 요지에 군진이 설치되었다. 興德王 3년(828)에 완도의 淸海鎭, 흥덕왕 4년에 남양의 唐城鎭, 文聖王 6년(844)에 강화의 穴口鎭이 차례로 설치되었다. 이들 군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패강진과 청해진이다.

패강진은 이전의 북변 수비의 중심이었던 大谷城을 승격시키면서 民戶를 이주시켜 군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¹¹⁾ 신라가 당으로부터 대동강 이남의 땅에 대한 영유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聖德王 34년(735)이었다. 이후 예성강 이북으로부터 대동강 이남의 지역, 즉 패서지역의 개척이 시작되었다. 景德王 7년(748)에 예성강 일대에 4개 군현을 설치하고, 이어 경덕왕 21년에 그 북쪽 지방에 6개 군현을 증설하였다. 헌덕왕대에 다시 북방으로

10) 鄭淸柱, 앞의 책, 81쪽. 그러나 金順式이 金周元의 직계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金貞淑, 〈金周元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1984, 189~191쪽).

11) 溟江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李基東, 〈新羅下代の 溟江鎭〉(《韓國學報》 4, 1976 ; 앞의 책, 208~231쪽).

木村誠, 〈統一新羅の郡縣制と溟江地方經營〉(《旗田巍古稀紀念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方東仁, 〈溟江鎭의 管轄範圍에 關하여〉(《盧道陽博士古稀紀念文集》, 1979).

진출하여 대동강의 남쪽 지역에 3개 군현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溟西地域의 개척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패강진이 설치되었다. 패강진은 예성강 이북으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북변 방어의 관문인 平山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패강진은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의 광범위한 지역의 군사적 임무를 담당하였다. 패강진은 신라의 서북 변경지대의 방어를 담당하는 국경 수비의 本營이었다.

패강진의 장관은 頭上大監으로 6두품의 관직이었다. 이 두상대감은 9세기 이후의 금석문에는 都護로 개칭되어 나타난다. 그 다음의 관직은 大監으로 7인이었는데, 그 관등은 太守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대감은 패강진 관할 아래 있는 郡의 太守로 믿어진다. 그 이외에도 頭上弟監·弟監·步監이 각각 1인, 少監 6인이 있었다.

한편 패강진이 설치되면서 그 곳에 옮겨진 민호는 軍戶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패강진에는 屯田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지방에 토착하는 항구적인 地方軍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¹²⁾ 결국 패강진에 이주된 민호는 평화시에는 농경에 종사하는 개척농민이었고, 외적 침입시에는 무장하여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패강진은 변방 지역의 개척과 수비라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진이었다. 패강진은 10停이나 5州誓와 같은 단순한 軍團이 아니라 州·小京 등과 동등한 하나의 독립된 행정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즉 패강진은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의 광범위한 변방지역을 관장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었다.¹³⁾

패강진의 軍官 조직은 민호를 둔전병적인 지방군으로 편제하여 지배·지휘하는 군사적 조직이었다. 이러한 군사적 조직을 중심으로 토착민 사이에 강력한 군사적 지배·지휘체계가 성립되었는데, 이 군사적 체계를 지배·지휘한 것은 물론 패강진의 여러 군관들이었다. 이들 군관들은 이러한 군사적 체계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신흥 지방세력으로 성장할

12) 李基白, 〈高麗 太祖時의 鎭〉(《歷史學報》10, 1958;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32쪽).

13) 李基東, 앞의 책, 221~222쪽.

수 있었다.¹⁴⁾

신라 하대에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패강진 지역은 경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이었으므로 맨먼저 중앙정부의 지배나 통제로부터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이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수탈이 비교적 적었을 것이다. 이에 당시의 많은 유민들이 이 곳으로 들어와 둔전병적 개척농민이 되어 농지를 개간하였을 것이다. 또한 패강진 지역은 당시 해상무역의 중요 거점인 예성강 하구 지대와 인접되어 있었으므로 해상세력과의도 연결될 수 있는 곳이었다. 요컨대 이 지역은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신흥 지방세력이 대두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흥덕왕대의 일련의 개혁이 실패하고, 이어 왕위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어가자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9세기 후반에는 지방에서 호족세력이 활발하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패강진 지역에서 등장한 호족들은 대체로 패강진의 군사적 조직을 통하여 성장한 세력이었다고 추측된다. 이는 이 지역 출신의 禪師인 順之·道允·折中の 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가계는 각각 ‘家業雄豪’·‘豪族’·‘郡族’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의 호족세력임을 알 수 있다. 순지의 祖考는 ‘世爲邊將’하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패강진의 軍官職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하여 호족으로 대두하였던 것 같다. 도윤의 조고는 그 관직이 郡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절충의 아버지는 활쏘기·말타기 등 무예로 이름을 떨쳤다는 것으로 미루어 모두 패강진의 군관직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하여 호족으로 성장했다고 생각된다.

패강진 출신의 호족 중에서 그 구체적 존재 양상을 알 수 있는 사례는 平山朴氏이다. 평산 박씨는 지방관으로서 명주·竹州로 이동하여 다니다가 平州(통일신라시대의 명칭은 永豐郡)에 정착하여 패강진 지역의 군사적 조직을 통하여 호족으로 성장하였다.¹⁵⁾ 朴直胤은 패강진 관내 평주의 군관직을 맡고

14) 金光洙,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史叢》 21·22, 1977), 137쪽.

15) 평산 박씨가 호족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對한 一考察—平山朴氏 一家門의 實例 檢討—〉(《歷史學報》 118, 1988; 앞의 책).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는 고구려의 장군직인 大毛達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라정부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리하여 박직윤의 아들인 朴遲胤의 대에 이르러 평산 박씨는 패서지역의 유력한 호족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 평산 박씨는 궁예에게 귀부하고, 이어 왕건과 결합함으로써 고려초에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박지윤과 朴守文·朴守卿 3父子는 각각 딸을 왕건에게 納妃할 정도로 고려초의 중요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평산 박씨와 王建家와의 연결은 왕건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건의 祖母인 龍女는 평주의 호족인 豆恩玷 角干의 딸이었는데, 용녀는 평산 박씨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왕건의 祖母와 父는 평산 박씨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順之의 후원세력이었다.

평산 박씨 이외에도 패강진 지역에서 성장한 호족 중에서 왕건과 결합하여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경우가 많다. 먼저 태조 왕건의 王后와 夫人을 배출한 가계를 들 수 있다. 黃州皇甫氏의 皇甫悌恭은 후삼국 통일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의 딸이 神靜王后 皇甫氏이다. 신정왕후의 딸이 광종의 왕비(大穆王后)가 된 이후로 황주 황보씨는 고려초에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였다. 貞州柳氏는 패강진 지역의 호족은 아니지만 정주가 예성강을 사이에 두고 패강진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패강진 지역의 호족과 함께 묶어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주 유씨는 神惠王后 柳氏(柳天弓의 딸)와 貞德王后 柳氏(柳德英의 딸)를 배출하였다. 태조의 부인을 배출한 호족으로 평산 박씨 다음으로 유력한 가계는 平山庾氏이다. 평산 유씨의 유금필은 왕건 휘하에서 수많은 군사활동을 하였는데, 그의 딸이 東陽院夫人 庾氏이다. 洞州金氏는 大西院夫人 金氏·小西院夫人 金氏(모두 金行波의 딸)를 배출하였다. 信川康氏는 信州院夫人 康氏(康起珠의 딸)를 배출하였다. 小黃州院夫人은 성씨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황주 황보씨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평산 박씨를 비롯하여 황주 황보씨·정주 유씨·평산 유씨·동주 김씨·신천 강씨 등 패강진 지역의 호족은 태조의 6왕후·23부인 가운데 3왕후·8부인을 배출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크게 진출하였다. 이외에도 패강진 지역의 출신으로 고려초에 활동했던 인물로는 中和金氏의 金樂·金鐵 형

제, 鹽州(연안)의 尹瑄·秦評, 土山(상원)의 崔凝 등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순지·도윤·절중 등의 선사가 이 지역 출신이다.

이와 같이 패강진 지역의 호족은 송악의 호족인 왕건 집안과 결합하였다. 이 결합은 왕건 이전부터 시작되어 궁예치하를 거쳐 왕건의 고려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시기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패강진 지역의 호족은 왕건의 주요한 세력기반이 되었고,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요컨대 왕건과 패강진 지역의 호족세력은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의 주역인 동시에 고려 초기의 정치를 주도한 세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임진강 이북으로부터 패강진 일대에 이르는 지역이 고려왕조의 모태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청해진은 흥덕왕 3년에 장보고에 의하여 설치되었다.¹⁶⁾ 장보고는 당에 가서 徐州의 武寧軍에서 30세에 小將이 되었다. 당시 서남해안에서는 신라인을 잡아다가 노비로 매매하는 해적들이 활동하였다. 이에 장보고는 해적을 퇴치하여 해안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해상무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국하였다. 그는 흥덕왕에게 요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그는 1만 명의 士卒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사졸은 私兵의 성격이 강하였고 실제로 왕위쟁탈전에서 祐徵(신무왕)을 지원하는 사병으로서 역할하였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 장보고는 황해·남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서남해안 지역에 출몰하는 해적선의 노예무역을 퇴치하였다. 아울러 그는 신라·당·일본 3국간의 교통과 무역을 독점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왕자가 되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당시에는 대단한 것이었고 상당히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지방세력이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지방세력을 배경으로 장보고는 중앙귀족과 연결하여 중

16) 淸海鎮과 張保臯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淸海鎮大使 張保臯를 主로 하여—〉 (1)·(2)(《震檀學報》1·2, 1934·1935).

李永澤, 〈張保臯 海上勢力에 關한 考察〉(《韓國海洋大學論文集》14, 1979).

蒲生京子, 〈新羅末期 張保臯의 擡頭와 反亂〉(《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

金光洙, 〈張保臯의 政治史的 位置〉(《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위의 책).

양정지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신라정부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일개 군진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신라말에 지방사회에서 대두하는 호족세력의 단서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 북진이나 당성진·혈구진을 기반으로 한 군진세력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군진들도 패강진이나 청해진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력가들에게 군사력을 제공하여 주는 근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북진은 궁예가 명주로 가서 모집하여 거느렸다는 3,500명의 군사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⁷⁾ 당성진은 900년에 궁예의 명을 받은 왕건에 의하여 평정되어 泰封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성진의 군사력은 태봉에 흡수되어 왕건의 수군활동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혈구진의 군진세력은 일찍부터 왕건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왕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羅州 방면의 정벌에 종사하여 공을 세운 것은 혈구진의 수군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⁸⁾

3)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

신라 통일기에 이르러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삼국통일로 말미암아 각지의 物貨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산업이 발달하고, 당과의 해상교통이 원활하게 되어 중국의 발달된 문화와 경제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른 문화의 향상과 생활상태의 변화는 물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대시켰다. 그 결과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朝貢에 의한 公貿易만으로는 물품 수요의 증가에 부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민간의 사사로운 교역, 즉 私貿易이 왕성해졌다. 이 사무역은 주로 해안지역의 지방세력에 의하여 해상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상무역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신라 하대에 이르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신라의

17) 李基白, <高麗京軍考>(《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47쪽).

18) 李基白, 위의 책, 48쪽.

해상무역은 주로 당·일본과의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신라의 해상무역은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발하여졌다. 장보고는 신라·당·일본 3국 사이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장보고는 당과 교역하기 위하여 수시로 大唐賣物使라는 교역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그 무역선은 交關船이라 일컬어졌다. 당시 장보고의 중국에서의 교역활동의 거점은 산둥반도의 끝에 위치한 登州 赤山浦였다. 그는 이 곳을 거점으로 하여 그 남쪽의 楚州·漣水·揚州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라의 무역상들을 하나의 交易網 속에 편제하여 그의 영향하에 두었다.¹⁹⁾ 장보고는 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본격화하였다. 그가 일본에 보낸 무역사절단은 回易使라 불려졌다. 당시 일본의 중국 물품에 대한 욕구는 매우 컸는데, 이는 장보고의 중개무역에 의하여 충족되었다. 장보고와 일본과의 교역은 빈번히 이루어졌고 그 규모는 상당히 큰 것이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때(828~841)는 신라의 해상무역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이와 같은 해상무역의 발전과 함께 해안 지역에서 해상무역활동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부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해상세력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장보고였다. 장보고는 앞 절에서 군진세력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는 군진세력으로서의 성격보다는 해상세력으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장보고가 해상무역활동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貿易統制였다. 그는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해적을 퇴치한다는 명분 아래 서남해안 지역의 群小 해상세력들을 단속·억제하여 그의 휘하에 통합·조직함으로써 해상무역의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²⁰⁾ 이에 따라 서남해안 지역의 군소 해상세력들은 청해진의 설치와 함께 장보고의 통제 아래 들어감으로써 종전에 그들이 점유하던 해상무역의 이익을 대부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가 암살된 이후 그 통제에서 벗어난 서남해안 지역의

19) 李基東, 앞의 글(1985), 107쪽.

20) 李永澤, 앞의 글, 83·92쪽.

李基東, 위의 글, 116~118쪽.

해상세력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해상무역에 종사하여 그 이익을 얻어 부를 축적하여 갔다. 이들은 후삼국이 정립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지방세력을 형성하여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 중에서 그 대표적인 존재는 松嶽地方의 왕건 가문이다. 왕건의 선대 중에 康忠은 禮成江 河口的 永安村 富人의 딸 具置義와 혼인하였다. 당시 예성강 하구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영안촌 부인은 해상무역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한 해상세력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강충이 영안촌 부인의 딸과 혼인하였다는 것은 그가 예성강 하구의 해상세력과 연결을 맺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왕건의 조부 作帝建은 商船을 타고 서해를 항해하던 중에 西海 龍王을 만나 그의 딸 龍女와 혼인하고 七寶를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서 작제건이 상선, 즉 무역선을 타고 서해를 항해하였다는 것은 그가 해상무역에 종사한 해상세력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그가 부를 상징하는 7보를 얻어 왔다는 것은 해상무역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그리고 서해 용왕은 막대한 財富을 가진 서해의 해상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²¹⁾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작제건은 서해의 해상세력과 연결을 맺고 해상무역에 종사하여 크게 성공한 해상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제건이 용녀와 혼인하고 돌아오자 白州(현 연안)의 正朝 劉相晞 등이 開·貞·鹽·白 4州와 江華·喬桐·河陰 3縣의 사람을 동원하여 그를 위하여 永安城을 쌓고 宮室을 지은 것은 그의 세력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일부, 강화도, 한강 하류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龍建은 송악군으로부터 예성강 하구에 있는 영안성까지를 왕래하였다. 이는 용건이 작제건을 계승하여 여전히 예성강 하구에서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해상세력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용건은 송악군의 沙磖이었는데, ‘郡을 들어 弓裔에게 歸附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송악군을 지배하던 호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왕건 가문은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호족으로 대두하였다. 왕건 가문은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이었다.²²⁾

21) 朴漢高, 〈王建世系의 貿易活動에 대하여—그들의 出身究明을 중심으로—〉(《史叢》 10, 1965), 275쪽.

예성강 하구 지역은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왕건 가문 이외에도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이 있었다. 먼저 백주의 정조 유상회를 들 수 있다. 그가 칭하고 있는 정조는 당시 새로 흥기하는 지방의 호족이 사용하던 호칭이었다.²³⁾ 그는 예성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4州 3縣의 사람을 동원하여 작제건을 위하여 영안성과 궁실을 지을 정도의 세력을 쌓고 있던 인물이다. 그는 해상무역에 종사한 해상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貞州(현 豐德)의 유천궁을 들 수 있다. 그는 왕건의 첫째 왕후인 神惠王后 柳氏의 아버지이다. 당시 정주는 水軍基地였는데 왕건이 羅州를 정벌할 때 이 곳에서 전함을 수리한 후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였다. 유천궁은 大富로서 長者로 불려졌다. 그의 富는 왕건의 군사 전체를 매우 풍족하게 먹일 정도였다. 그는 왕건의 戰艦을 수리하는 데에도 후원하였을 것이다. 그가 왕건의 군대를 후원할 정도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것은 정주 浦口를 중심으로 서해안에서 해상무역에 종사한 해상세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유천궁의 정주 유씨는 해상세력에서 호족으로 성장하였다.²⁴⁾

예성강 하구 지역 이외에도 나주·靈巖·壓海·樸城·康州·蔚山 등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근거지에는 해상세력이 부를 축적하여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나주는 신라말·고려초에 서남해안지역의 對唐交通과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나주의 多憐君은 왕건의 둘째 왕후인 莊和王后 吳氏의 아버지이다. 다련군의 아버지는 富侖인데, 부돈은 富者라는 의미를 지닌다. 羅州吳氏의 조상은 중국에서 상인으로 興하여 해외무역상을 따라 신라로 건너왔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다련군의 나주 오씨는 해상무역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한 해상세력으로 생각된다. 다련군이 나주의 지방세력가로 추측되는 沙干 連位의 딸과 혼인하고 그의 딸을 왕건과 혼인시킨 것으로 보아, 그는 나주지역의 유력한 호족으로 생각된다. 나주 오씨는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이었다.²⁵⁾

22) 鄭淸柱, 〈王건의 成長과 勢力 形成〉(《全南史學》 7, 1993; 앞의 책, 96~102쪽).

23) 正朝는 角干·聖骨將軍과 마찬가지로 당시 지방의 호족들이 신분을 粉飾하기 위하여 사용한 호칭으로서 고려초에 鄉職 7品으로 되었다(李佑成, 〈麗代百姓考〉, 《歷史學報》 14, 1961;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176~177쪽).

24) 鄭淸柱, 앞의 책, 112~114쪽.

25) 姜喜雄,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韓國學報》 7, 1977), 69쪽.

영암은 나주와 함께 신라말·고려초에 서남해안지역의 대중국교통과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 또한 영암은 신라말에 풍수지리설을 발전시킨 道詵과 그의 제자 慶甫의 출신지이다. 靈巖崔氏는 崔知夢을 배출한 가문이다. 최지몽은 經史를 널리 섭렵하고 天文·卜筮에 정통하였는데, 그는 영암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최지몽의 가문은 영암지역의 유력한 호족으로 생각된다. 영암 최씨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호족으로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²⁶⁾

압해(현 신안군)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해상교통의 요지이다. 이 곳에는 能昌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는 水戰에 능하여 수달이라고 불려졌다. 그는 부근에 있는 여러 섬의 군소 해상세력과 결속하여 왕건의 수군에 대항하였는데 왕건도 그의 세력을 경시하지 못하였다. 그는 賊帥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압해지역의 해상세력을 지배하는 호족이었다.²⁷⁾

해성은 아산만의 남쪽 연안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沔川郡으로 불려진 곳이다. 해성에는 신라시대에 水軍倉·穀倉이 설치되어 있었고, 唐의 使臣·商人이 머무르는 숙소가 있었으며, 신라의 조공을 실어 보내는 大津이라는 항구가 있었다. 이같이 해성은 신라시대에 대당교통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한 곳이었다. 따라서 해성에 해상세력이 존재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성 출신의 인물로는 朴述熙와 卜智謙을 들 수 있다. 박술희는 莊和王后 吳氏 소생의 武(惠宗)를 후견한 인물로서 왕건·나주 오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가 두 가문과 동일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박술희가 거느렸다는 100여 명의 병사는 그의 아버지 大丞 得宜가 해성에서 거느렸을 사병을 기반으로 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득의는 해성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박술희 가문은 해상무역에 종사한 해상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복지겸의 선조는 당으로부터 와서 해성군에 거주하면서

鄭淸柱, 〈新羅末·高麗初의 羅州豪族〉(《全北史學》 14, 1991; 위의 책, 157~158쪽).

26) 鄭淸柱, 위의 책, 158~159쪽.

27) 鄭淸柱, 위의 책, 154쪽.

28) 鄭淸柱, 〈王建的 成長과 勢力 形成〉(《全南史學》 7, 1993; 위의 책, 118~120쪽).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모아 보호하였다. 이것은 卜氏 가문이 당에 왕래하면서 해상무역에 종사하였으며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모아 보호할 정도의 해군력과 부를 소유한 해상세력이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²⁹⁾ 박술희 가문과 복지검 가문은 해성지역의 해상세력이었다. 이들 가문은 해상세력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쌓아 호족으로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강주(현 진주)에서도 해상세력이 대두하였다. 王逢規는 경명왕 8년(924)에 泉州節度使로서 後唐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그 후 경애왕 4년(927) 3월에 왕봉규는 權知康州事로서 후당으로부터 懷化大將軍을 제수받았다. 이어 다음달에는 知康州事로서 후당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왕봉규는 泉州(현 의령)에서 독립적 세력을 형성하여 마침내 강주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른 호족이었다.³⁰⁾ 그가 후당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정치적 의미를 크게 지니고 있지만, 조공을 통한 공무역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왕봉규의 對中外交는 당시의 정세로 보아 海路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그가 해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렇다면 그는 해상무역에 종사한 해상세력이었을 것이다.

또한 울산(興禮府)은 경주의 外港으로 국내외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중심지였고, 당·일본과 교통하는 국제항이었다.³¹⁾ 당시 이 곳에서는 朴允雄이 神鶴城將軍으로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행사하면서 호족으로 대두하였다.³²⁾ 그는 울산항의 무역 이윤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³⁾ 이런 점에서 박윤웅은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으로 볼 수 있다.

29) 鄭淸柱, 위의 책, 126쪽.

30) 金庠基,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通交—특히 王逢規를 中心으로—〉(《黃義敦先生 古稀紀念 史學論叢》, 1960; 《東方史論叢》, 서울대 出版部, 1974, 436쪽).

31) 李龍範, 〈處容說話의 一考察〉(《震檀學報》 32, 1969), 20~25쪽.

32) 李佑成,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앞의 책, 182~184쪽).

33) 具山祐,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韓國文化研究》 5, 釜山大, 1992), 31~33쪽.

4) 촌주 출신의 호족

村主는 촌락에서 村政을 담당하는 在地勢力의 대표자였다. 촌주는 우선 村落文書 작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촌락문서에 의거하여 촌주는 촌락 단위의 租·調 수취, 力役 동원에 관여하였다. 여기서 역역의 동원은 국가의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촌락문서에 나오는 麻田·官謨畝의 공동경작에도 해당되었다. 그 이외에도 촌주는 비상시에 촌락을 방위하기 위하여 村民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였다.³⁴⁾ 이와 같이 촌주는 촌락문서 작성, 租·調 수취, 역역 동원, 촌락 방위 등 촌정 전체를 담당하였다. 결국 촌주는 촌락에서 對民關係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촌주는 촌락의 촌정을 담당하면서 이와 동시에 郡·縣司에 참여하여 吏職者와 더불어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⁵⁾ 1개의 군·현사에 참여하는 촌주는 3, 4 명이었는데, 上(제1)·제2·제3촌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촌주를 구별한 기준은 촌주의 세력기반이 되는 촌락의 규모(경제력·군사력)나 촌주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었을 것이다. 이들 촌주는 眞村主로서 5두품의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⁶⁾

이러한 촌주의 임무와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촌주는 국가로부터 村主位畝를 지급받았다. 신라 촌락문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沙害漸村 출신의 촌주는 19結 70負의 촌주위답을 지급받았다. 이는 사해점촌의 烟受有畝 총 면적 94결 2부 4束의 약 1/5이다. 사해점촌의 10개 일반 촌민의 孔烟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 연수유전·답 면적은 13결 64부 3속이었다. 그러니까 촌주위답은 일반 촌민의 평균 연수유전·답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또한 촌주는 일반 촌민들보다 훨씬 많은 노비와 우마를

34) 李鍾旭, 〈新羅帳籍을 통하여 본 統一新羅時代의 村落支配體制〉(《歷史學報》 86, 1980), 36~41쪽.

金周成, 〈新羅下代の 地方官司와 村主〉(《韓國史研究》 41, 1983), 70~71쪽.

35) 李鍾旭, 위의 글, 48쪽.

金周成, 위의 글, 70쪽.

36) 李鍾旭, 위의 글, 31~33쪽.

소유하여 경작에 이용하였다. 이처럼 촌주는 일반 촌민들보다는 우월한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으로 인하여 촌주는 해당 촌락에서 상당한 경제적 실력자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촌주가 租·調 수취와 역역 동원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사실로 믿어진다. 또한 촌주는 군·현의 행정기구인 군·현사에도 참여하였으므로 지방사회에서 세력기반을 확대하여 정치적·군사적 실력자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촌주는 신라 하대에 그 지위가 높아졌다. 흥덕왕 9년(834)에 반포된 규정에 의하면 진촌주·次村主는 각각 5두품·4두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흥덕왕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련의 치열한 왕위쟁탈전을 거치면서 골품체제가 동요하게 되자 그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 같다. 문성왕 18년(856)의 〈廢興寺鍾銘〉을 보면 현령 아래에 상촌주·제2촌주·제3촌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三重沙干·沙干·及干的 관등을 지니고 있다. 3중사간·사간·급간은 6두품 이상만이 가질 수 있는 관등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촌주는 골품체제의 동요와 함께 지방사회에서 그 지위나 실력을 높여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진성여왕대 이후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촌주는 그가 가진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방세력, 즉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촌주 출신의 호족은 촌주의 세력기반이 촌정의 담당이나 군현 행정에의 참여에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군현 정도의 지역이나 그보다 작은 지역을 지배하는 존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군·현을 城으로 부르기도 한 것을 염두에 둘 때, 郡·縣城을 근거지로 하면서 城主라고 불리는 호족들 중에는 촌주 출신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말에 지방의 호족들 중에서 촌주 출신으로 유추되는 몇 가지 예가 나온다. 왕건의 선대인 康忠·龍建은 松嶽郡의 上沙槩·沙槩을 칭하고 있다. 이 상사찬·사찬은 상촌주나 제2촌주의 관등이었으나 고려초에 촌주의 직명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므로³⁷⁾ 왕건의 선대는 송악군의 촌주로 추측되기도

37) 신라말·고려초에 上沙槩·沙槩은 上村主·第二村主의 직명으로 사용되었다(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 23, 1979, 126~130쪽).

한다. 그러나 왕건의 선대를 촌주로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상사찬·사찬이 촌주의 직명으로 사용된 사례가 금석문에 나타나는 시기는 940년대이므로³⁸⁾ 강충이나 용건의 시기에도 상사찬·사찬이 촌주의 직명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건의 선대는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당시 지방세력이 잠칭하던 職名 중의 하나인 상사찬·사찬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³⁹⁾ 아무튼 촌주가 호족이 되었다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사례는 지금까지 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鄭淸柱〉

3. 장보고와 청해진

신라의 해상세력은 9세기에 이르러 활기를 띠었다. 그 대표적 세력은 淸海鎮(완도)¹⁾을 거점으로 대외무역을 전개한 張保臯였다.²⁾ 그의 신분은 본디 완도의 측미한 海島人이었다. 그가 入唐한 시기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9세기초 흥년과 기근이 극심했던 憲德王 6년(814)부터 9년 사이로 판단되며,³⁾ 그가 최초로 정착한 곳은 徐州였다.

그는 서주의 武寧軍에 입대한 뒤 淄·靑·登州 등 15州를 관장했던 李師

38) 금석문에서 사찬이 촌주의 직명으로 사용된 사례는 〈鳴鳳寺慈寂禪師凌雲塔碑〉(태조 24년; 941)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39) 당시 지방세력이 상사찬·사찬뿐만 아니라 一吉干·阿干 등의 관등이나 大監·侍郎·郎中 등의 관직을 자기의 직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金光洙, 앞의 글, 1979, 123~124쪽·130쪽).

1) 청해진은 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將島(助音島)로 1984년 9월 1일자로 사적 제308호로 지정되었다.

2) 이름은 保臯 이외에도 弓福·弓巴·寶高 등이 있었다. 궁복·궁파는 弓術 등 무술에 능한 상징적 의미로 보아 그가 渡唐하기 전 소년시절에 불렀던 이름, 保臯는 入唐하여 武寧軍에 입대한 뒤에, 寶高는 신라·당·일본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호칭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3) 崔根泳, 〈9世紀 新羅의 對唐進出에 대한 一考〉(《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377쪽.

道 토벌에 참여하여 小將으로 승진, 명성을 떨친 뒤 軍에서 나와 赤山지방을 무대로 세력기반을 구축하였다. 당시 수도인 長安을 비롯하여 登州 牟平縣 乳山浦, 文登縣 赤山浦 일대와 大運河 淮水流域의 내륙지방 곳곳에는 백제·고구려계 후예와 신라의 유학생·사신·무역상인의 잦은 내왕으로 신라인의 생활기반이 개척되어 流移民이나 무역상의 활동에는 그리 낯설지는 않은 곳이었다. 예컨대 楚州·漣水·揚州·赤山 등지에 설치된 新羅坊·新羅館·新羅所·新羅院 등을 보아 알 수 있다.

장보고는 在唐시절 적산지방에 이미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財力家로 군림하였다. 그 사실은 年收 500石米의 庄土를 기증하여 창건한 法華院⁴⁾이 시사해 준다. 그는 법화원을 기반으로 재당신라인들의 정신적 안녕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양주·초주 등지에 거주하는 신라인들과 연관을 맺는 등 후일 對中國 무역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귀국하였다.

장보고가 귀국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귀국 후 興德王에게 淸海에 鎭營을 설치하여 奴婢掠賣防止와 해적소탕에 뜻이 있다고 진언한 것(828)⁵⁾을 고려하면 그는 분명 해상세력가로의 진출에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뜻을 받아들인 흥덕왕은 그에게 1만의 군사를 주어 청해진을 설치토록 허락하고 신라역사상 관직에도 없는 大使라는 직함을 주었다.⁶⁾ 이로써 그는 명실공히 해상세력가로 등장하여 뜻을 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청해진을 설치한 완도의 지리적 조건을 보면 황해를 횡단하여 중국과 연결되고, 동남쪽으로는 일본의 北九州 博多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의 길목이며, 더욱이 경주의 관문인 울산항을 왕래하는 羅·唐 양국의 상인들과 일

4) 법화원에는 僧 24명, 尼僧 3명, 노파 2명이 상주하였으며 新羅通事押衙 張詠·林大使·王訓 등이 관리하였다. 講會는 불교의식으로 신라의 풍속대로 진행되었다. 839년 11월 16일부터 840년 정월 15일까지 매일 40명 내외의 신도가 모였고, 마지막 20일간은 250명과 200명이 참여한 것을 보면 법화원의 寺勢를 짐작할 수 있다(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2, 開成 4년 6·7월).

5) 《三國史記》 권 44, 列傳 4, 張保臯.

6) 흥덕왕이 장보고의 진언을 흔쾌히 받아들여 그를 후원한 것은 김헌창의 반란 이후 사회적 혼란을 틈타 서남해안과 영산강 연안 등지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지방세력과 군소 해상세력의 대두를 우려하였거나 또는 서남해안에 출몰하는 해적들을 방어할 필요성 등 당시 중앙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장보고의 뜻과 맞아떨어져 그 책임을 그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과 唐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장악·보호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지이다. 한편 내륙으로는 康津·海南·羅州 등 영산강 연안 등지의 토호나 군소 해상세력을 통어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장보고는 이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상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중국내에는 적산포를 중심으로 초주·연수·양주 등지에 분산되어 있는 신라 무역상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편제하여 그의 영향권하에 두고 중국 서남해 지방까지 세력을 뻗쳐 나·당간의 무역권을 독점하였다.

당과의 무역은 그의 교역사절단인 遣唐賣物使와 무역선인 交關船의 동정에서 살필 수 있다. 예컨대 神武王 때(839년 6월 27일) 張大使의 교관선 2척이 적산포에 도착하여 다음날 매물사 崔兵馬使(崔暉)가 당의 冊封使 吳子陳 등 30여 일행을 법화원에서 만난 사실,⁷⁾ 그리고 840년 2월 15일 최병마사가 탄 배가 등주의 유산포와 양주지역간을 왕래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⁸⁾ 이 때 양주지방은 일본과의 무역으로 巨富가 된 신라의 상인도 있었으며, 페르시아·아라비아 방면의 상인들까지 모여드는 국제적 무역항이었다.⁹⁾

당시 장보고의 교역품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당시 唐과 公貿易을 통한 수출품은 金·銀·銅공예품, 직물공예품, 魚牙紬, 朝霞紬, 細布, 海豹皮 등이었고, 신라로 수입된 것은 서적·茶·衣服·견직물·문방구 등과 중국 서남해 지방의 산물인 沈香 등 진귀품도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장보고 선단의 교역품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중앙의 귀족들이 즐겨찾는 남방물산의 진귀품인 瑟瑟·毘毘·翡翠毛·玳瑁·沈香 등과 馬鞍·貂皮·帆布 등의 사치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9세기는 중앙의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을 것이다. 한편 신라상인이 白居易의 詩文을 占買하고 저명한 화가의 작품들을 고가로 사들였다고 하며,¹⁰⁾ 당시 아랍 무슬림들도 신라의 劍·絹布·陶磁器 등을 수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교역활동은 장보

7)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2, 開成 4년 6월 27·28일.

8)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2, 開成 5년 2월 15일.

9)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108쪽.

10) Edwin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The Ronald Press Co, New York, 1955, p.281.

고 휘하 상인들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다.

장보고의 교역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청해진에서 출토된 중국 越州窯 계통의 9세기 청자로 추정되는 해무리굽 靑磁 底部片 및 注口片이다.¹¹⁾ 이로 미루어 장보고 휘하 상인들이 浙江地方의 명산인 청자까지 이미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고려시대 청자의 대표적 요지인 康津郡 大口面이 將島로부터 가까운 거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곳에는 장보고 선단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다.

한편 일본과의 교역을 보면 통일 이후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원활하지 못했다. 景德王 12년(753) 신라에 온 일본 사신이 오만무례하여 접견하지 않은 사건¹²⁾을 계기로 국교는 사실상 단절되어 오다가 哀莊王 4년(803) 교빙이 시작되어¹³⁾ 양국간에는 사무역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다.

당시 일본상인들은 중국 문물에 대한 욕구는 컸으나 조선술과 항해술이 신라보다 뒤떨어져 신라상인의 중개무역에 의해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정이었다. 신라인의 對日交易은 9세기에 들어와 한층 활기를 띠었다. 《日本後紀》권 22, 弘仁 3년(812)조에 보면, 신라의 선박 20여 척이 對馬島 근해에 나타난 것을 보고 해적선으로 오인하여 신라어 통역관과 군대를 동원하여 엄히 경계한 일도 있었다. 이 때 일본 당국은 대마도에 新羅譯語를 두었다.¹⁴⁾

장보고의 대일교역은 청해진 설치 이전인 在唐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¹⁵⁾ 청해진 설치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는 回易使라는 무역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그들은 大宰府나 일본 본국정부의 묵인 아래 교역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회역사들은 博多에 무역소를 두고 일본관원을 상대

11) 文化財研究所, 〈將島清海鎮 將島試掘發掘調査 指導委員會 會議資料〉, 1992), 7쪽.

12) 《三國史記》권 9, 경덕왕 12년 8월.

13) 《三國史記》권 10, 애장왕 4년 7월.

14) 《日本後紀》권 24, 嵯峨天皇 弘仁 6년 정월 임인.

15) 天長 원년에 張大使가 일본에 도착했다는(《入唐求法巡禮行記》권 4, 會昌 5년 9월 22일) ‘장대사’는 赤山지역 신라인 집단의 두목인 張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李永澤, 〈張保皋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4, 1979, 75쪽) 小野勝年은 장보고로 간주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4, 鈴木學術財團, 1969, 243쪽).

로 상거래를 하였는데 상품의 인기가 높아 구입대금을 선납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인들의 그 같은 상행위를 경계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니¹⁶⁾ 장보고는 일본과의 무역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보고는 대일무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文聖王 2년(840) 회역사 李忠·揚圓을 大宰府에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공적인 무역관계를 터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그 제의에 대하여 人臣으로서의 遣使는 舊例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그들이 지참한 상품만을 교역하도록 허락하였다.¹⁷⁾ 이처럼 장보고의 교역품은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사실은 前筑前太守 文室官田麻呂가 장보고가 살해되었다(841년)는 것을 알고 장보고의 무역소에 있는 화물을 선납금 대신 차압하여 손실을 보충하려 한 것에서도 족히 알 수 있다.¹⁸⁾ 그리고 장보고가 피살된 후 이충·양원이 일본 博多로 들어가자 장보고를 살해한 엄장은 그의 부하 李少貞을 일본에 보내어 이충 등이 가지고 온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大宰府에 요청한 사실¹⁹⁾도 있었다.

요컨대 장보고의 해상세력은 남서해안에 출몰하던 해적 소탕은 물론, 신라·당·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을 독점하여 우리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해상왕국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장보고의 해상세력 몰락에 대하여 살펴보자.

장보고가 東亞三國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여 해상군주로 군림하자 중앙의 왕실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²⁰⁾ 또한 청해진은 중앙 진골귀족들간의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한 정객들의 정치적 망명처가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흥덕왕이 즉자(836) 均貞과 悌隆(후의 僖康王)간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져

16) 《續日本後紀》권 10, 仁明天皇 承和 8년 2월 무진.

17) 위와 같음.

18) 《續日本後紀》권 10, 仁明天皇 承和 8년 2월 을사.

19) 위와 같음.

20) 신라 하대 호족세력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1만의 병사를 갖게 된 장보고는 일정한 지역에서 군사·행정·경제적 독립성이 유지된 세력이었다(崔根泳, 《統一新羅時代の 地方勢力研究》, 신서원, 1993, 137~146쪽).

그 싸움에서 패한 군정의 아들 金祐徵이 처자와 함께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장보고에게 의지하였다.²¹⁾ 그리고 上大等 金明(후의 민애왕)이 侍中 利弘과 함께 회강왕을 꺾박하여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분노를 느낀 金陽은 군사를 모집하여 청해진으로 도망갔다.

청해진에서 김우징과 김양은 민애왕 타도를 결심한 후 장보고로부터 병력 5천명의 지원을 받아냈다. 민애왕 원년(838) 12월 김양은 청해진에서 平東將軍이 되어 閻長·張弁·鄭年·駱金·張建榮·李順行 등을 이끌고 首都 진격을 개시하여 武州 鐵冶縣에서 정부군을 격파하고, 839년 정월 19일 달구벌(대구)에서 또다시 伊滄 大昕 등이 거느린 王軍의 절반을 살해한 뒤 수도에 진입하였다. 궁궐에 난입한 김양군은 민애왕을 살해하고 김우징을 신무왕(839)으로 즉위시켰다.

이렇듯 장보고의 후원으로 왕위에 오른 김우징은 그의 공을 인정하여 義軍使란 직함을 제수하고 食邑 2천 호를 封하여 주었다.²²⁾ 그리고 신무왕이 병사(839년 7월)한 뒤 太子 慶膺이 문성왕으로 즉위하자 그는 父王 즉위의 공을 추가하여 鎮海將軍²³⁾이란 직함을 제수하였다. 이로써 장보고는 명실공히 왕권과 연계된 중앙의 귀족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장보고의 운명은 그의 딸을 문성왕의 妃로 들이려는 納妃문제가 화근이 되어 끝내 살해되고 말았다.²⁴⁾

21) 《三國史記》 권 10, 新羅本紀 10, 회강왕 2년.

22) 《三國史記》 권 10, 新羅本紀 10, 신무왕 원년.

23) 將軍이란 군단(幢·停)의 최고 지휘관으로 진골귀족이 독점한 무관직이다. 이職은 급찬에서 아찬에 이르는 신분이 임명된다. 즉 장보고를 진해장군으로 임명, 청해진을 거점으로 남서해안 등 일정지역을 통어하는 장군으로 그의 직위를 높여준 것이라 하겠다.

24) 장보고가 살해된 해는 846년(《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문성왕 8년)이 아닌 841년이다. 《續日本後紀》 권 11, 仁明天皇 承和 9년 정월 을사조에 “寶高는 지난해 11월 중에 死去”라 하였고,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4, 會昌 5년 7월 9일 조에 前淸海鎮兵馬使 崔暈이 국난을 당하여 회창 5년(845) 7월에 중국 漣水の 신라방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新唐書》 신라전에 회창 연간(841~846) 이후로 당에 장보고의 조공이 끊겼다는 기록, 또한 842년 3월 김양의 딸을 문성왕의 妃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는 841년에 살해되었으며, 그것은 반란으로 인한 살해가 아니라 김양의 사주로 염장에 의해 암살된 것이었다(崔根泳, 앞의 책, 141~144쪽 참조).

장보고가 살해된 뒤 청해진은 염장을 중심한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10여년간 존속하다가 문성왕 13년(851) 혁파되고 그 곳 주민마저 碧骨郡(김제)으로 강제로 사천되었다. 그 어간의 정세를 보면, 장보고가 살해되자 그의 副將이었던 李昌珍은 염장을 제거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으나 討平되어²⁵⁾ 장보고계의 상인들은 당과 일본 등지로 망명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²⁶⁾

당시 실권을 장악한 염장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부하 이소정을 일본에 보내어 이충·양원 등이 지참한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청해진을 혁파하고 그 곳 주민들까지 강제적으로 사천시킨 것은 염장 등의 신흥세력이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장보고의 해상세력은 신라 하대사회의 지방세력 형성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고 보겠다.

〈崔根泳〉

25) 《續日本後紀》권 11, 仁明天皇 承和 9년 정월 을사.

26)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4, 會昌 5년 7월 9일.